

# 광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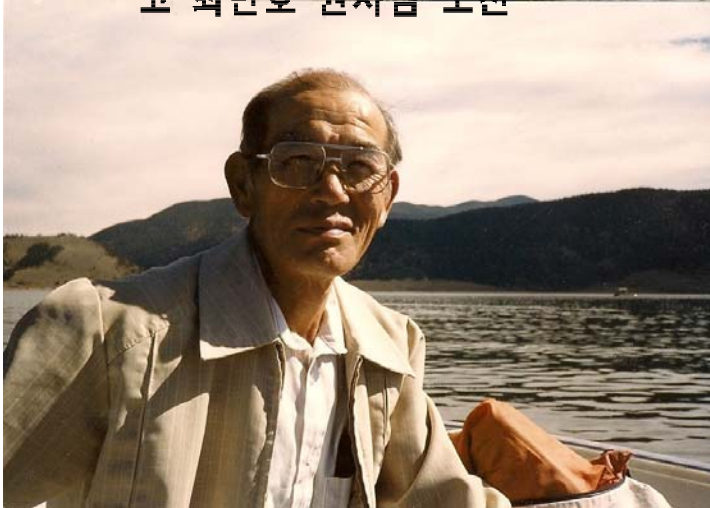
## Voice in the Wilderness

# August 2009

## 8 월호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 고 최만호 권사님 소천



지난 7월 1일 저녁 10시경 만90세로 생전에 부인을 늘 아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던 최만호 권사님께서 긴 삶의 여정을 마치고 소천하셔서 7월 4일 장례식이 있었다. 김기천 목사의 주례와 연합 감리교회의 찬양으로 어우러진 장례식을 마친 후 한인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유가족과, 친지, 한인들이 함께 나누면서 위로의 정을 나누었다. 4페이지 계속



박영숙 집사님 화랑에서 찍은 사진 (관련기자 9페이지)

### 내 용 Contents

6.25 기념 제막식, 홍정희씨 차남 결혼/p.2  
 미세스 뉴멕시코 황세희씨/p.3  
 한인회 부회장 생일과 만두 바자회/p.3  
 고 최만호 권사 유족의 감사 말씀/p.3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정경훈 교사)/p.4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p.5  
 Kirtland Air Force Base 직원 모집/p.5  
 Water Heater Safety /p.5  
 PNM에서 30분을 줍니다/p.5  
 아이들과 어른을 위한 여름 방학 프로그램/p.6  
 이 돈만큼 총을 더 가져오시오(수암칼럼)/p.6  
 음악 및 영화 감상실 설치법(김준호 장로)/p.7  
 인사동 옛 거리에 흠뻑 복진 미국인(박영숙 집사)/p.9  
 동유럽 기행문: 독일 드레스덴(이경화 장로)/p.10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 법안/p.12  
 Korean War resumption?/p.13  
 생활의 지혜: 차에 타자마자 여객인 커치 마세요/p.15  
 사랑의 나눔 편지를 소개합니다/p.16  
 여자와 어머니/p.16  
 웃는 연습을 하라 인생이 바뀐다/p.16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드리는 글/p.17  
 벼룩시장/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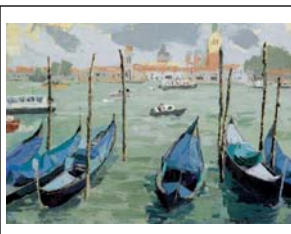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을 다음과 같이 결정 했습니다.

흑백: 1/8페이지-\$20, 1/4페이지-\$40,  
 칼라: 1/8페이지-\$35, 1/4페이지-\$70,  
 1/2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6.25 기념 제막식



기념비 제막식에 참가한 김두남현 한인회 회장, 문상귀전임회장, 미야무라씨, 김영임목사



2008년 7월 27일 뉴멕시코 Veteran Memorial 야외극장에서 있었던 한국전쟁 기념비 제막식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깃발, 3페이지 계속



황세희씨 미세스 뉴멕시코 당선



한인회 부회장 낸시랜스님의 생일파티  
지난 7월 2일 한인회관에서 아리랑에서 준비한 음식

## 결혼 축하 브라이언 군



지난 6월 27일 UNM에서 YOUNG LIFE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흥정회씨의 차남 브라이언 군과 마사양의 결혼식이 많은 축하객 속에 아름답게 열렸다. 두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

과 함께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 난시님의 한인회를 위한 아낌없는 섬김과 봉사의 손길에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이어 연결된 사진은 **한인회 만두 바자회(7월 13~14일)** 뜨거운 여름날에 열심히 만두를 빚고 계시는 자원 봉사자님들의 맛깔스러운 손맛! 이 손길들을 통해서 한인회의 살림은 하루하루 불어나고...

#### (6.25 기념 제막식 계속)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하는 숫자가 있다. 6-25라는 세 개의 숫자.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을 뜻한다. 얼마 전에 6-25한국 전쟁 59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신문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사 하나를 보았다. 한국 중고등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옳게 아는 학생이 48%밖에 안 된다는 소식이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 했던 전쟁! 국군 14만 9천 명과 UN군 5만8천의 죽음으로 막아낸 이 전쟁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안타까워 하는 글을 발표한 것을 읽었다.

미국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이해가 부족하다. 남의 나라를 도와 준 전쟁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행사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였던 만큼 2차 대전에 대한 예기는 언론과 방송의 조명을 받는 것을 자주 보지만 한국전쟁에 관련된 행사나 기사는 언론과 방송에 소개되는 예를 보기가 어렵다. '한국전쟁은 너무도 빨리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자주 제기되어 왔었다. 한국전쟁을 아예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 이라고 까지 불러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멕시코 주의 한국전쟁 참전 퇴역 군인회에서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세웠었다. 잊혀지는 전쟁을 잊을 수 없는 전쟁으로 바꾸자는 의도였다. 한국전쟁 휴전 제 55주년이 되는 작년 7월 27일을 기해 제막식을 뉴멕시코 Veterans' Memorial (1100 Louisiana Blvd, SE에 소재)에서 한국전 참전 퇴역군인과 가족, 주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회와 교민을 포함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었다.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바 있는 Hiroshi Miyamura씨는 제막식에서 말하길 이 기념비야 말로 진작 세워졌어야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건립되어 이 기념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아쉽다고 했다. 뉴멕시코 Gallup에 거주하는 Miyamura씨는 한국 전쟁 때 기관총 사수였는데 그가 소속된 부대가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었다. 그때 동료군인을 모두 후퇴하게 하고 혼자서 적과 기관총으로 대항하여 동료 군인들을 모두 무사하게 퇴각하게 하였다. 중공군 50여명을 막아냈으나 탄알이 다 떨어지자 끝내는 육박전까지 벌리며 저항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지않고 포로로 잡혀 이북에 있는 수용소에서 2년을 보내고 휴전이 되자 관문점을 통해 포로교환

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희생정신과 용감성은 높이 평가받아서 곧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었다.

금년 7월 27일은 휴전이 된지 56년이 된다. 한국전쟁은 휴전된지 56년이 지났건만 남북의 긴장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 폭탄으

로 위협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게 한 한국 전쟁때 목숨 내걸고 참전해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뉴멕시코 주에서만도 2만여 명의 미국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이중 214명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7월이 되어 한국전쟁 기념비를 보면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피흘려 지켜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다. 우리 조국을 지켜주었던 옛 한국전쟁 퇴역 군인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

참고사항: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는 New Mexico Veterans' Memorial은 1100 Louisiana Blvd. SE (Kirtland 공군기지 Gibson Gate에서 한 블록 북쪽)에 있다. 매일 아침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공개되고 Visitor Center와 Museum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연다. 입장료는 무료 (2009년 7월4일 광야의 소리 애독자 씀)

### 황세희씨 미세스 뉴멕시코 당선

#### Mrs New Mexico TOP 5

지난 2009년 6월 20일 (토), 7pm, 알버커키 Journal Theatre에서 이번 2009년도미세스 뉴멕시코 선발대회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멕시코 중남부 지역을 대표로 황세희씨가 출전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10명의임원들은 황세희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느새 한 가족이 되어 준비해 간 피켓을 들고 뜨거운 응원을 펼쳤고 황세희씨는 선전 끝에 마지막 5명의승자에 당선되는 기쁨을 한인사회에 안겨 주었다. 결혼한 여성들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미세스 뉴멕시코(Mrs. New Mexico Pageant)에 당선이(Crown) 되면 총합불의 상금과 트로피(Trophy), 그리고 미세스 아메리카 (National Mrs. America Pageant)에 출전하는 모든 비용을받게 되며 1년간 최소 주 내 60 Appearances 통해 사절단의 사명을 갖게 된다고 한다. 관련 링크<http://www.mrsnewmexicoamerica.com/>

### 고 최만호 권사 유족의 감사의 말씀

저희 부친 최만호 권사께서 지난 7월 1일 저녁 10시 1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7월 4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고인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음을 접하고 문상해 주신 분들과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예배를 집례해 주신 감리교회 김기천 목사님과 성가대원, 교우님들 또한 식사를 제공해 주신 한인회장님 이하 한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중이라 우선 지면으로 감사인사를 대신하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가족 최경자 경애 경희울림



##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한글학교 교사 정경훈

한국 학교에서의 소감을 얘기하려고 하면 지난 해 그러니까 2008년 봄 학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시작한 것만 같았던 2008 봄 학기 한글 수업이 즐거웠던 봄 소풍 (5월 둘째 주)을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때가 한글학교에서 맞는 두 번째 학기였고, 그때 제가 맡았던 두 반에 대한 소개와 기억에 남아있는 즐거웠던 일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 11월 제가 처음 맡았던 8세에서 12세 사이의 5명으로 이루어진 고급반 학생들은 미국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한국 아이들로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써도 실상은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한국어 실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 한 인회관에서 이루어졌던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약간의 반복만 있다면 가르쳐준 것들을 놀랍도록 잘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더 자주 가르쳐준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텐데, 일주일에 단 두 시간만을 함께 한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랐던 것은, 말을 할 때와 읽을 때의 발음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비록 그 발음이 같은 또래의 한국 아이들이 말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아도 크게 부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다가도, 막상 읽기에만 들어가면 발음이 꽤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한국어로 얘기는 나누어도 글자를 보며 읽는 연습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가을 학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읽을거리를 통해 읽기 공부를 더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다.

처음 한글학교 교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였고, 그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 아이들이면 서도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해될 만한 일일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 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글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을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기적인 한글 수업을 꾸준히 받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을 믿고 앞으로도 꾸준히 한글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계획을 세워봅니다.

고급반과 더불어 2008학년도 봄 학기부터는 성인반도 맡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은 총 6명으로 각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먼저 브루스 부부는 한국인 아이 둘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 본인들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브루스 아저씨는 수업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주머니는 매주같이 아이들과 함께 오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를 찾는 모습에 제 마음까지도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 부인과 결혼한 두 분의 미국 아저씨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대화는 영어로 하지만, 한 두 마디 한국어라도 구사하기 위해 오시

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한국어를 찾아내고 가르쳐드리는 일은 저에게도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사랑해"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학생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좋아해 찾아오고 이제는 제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준 분들입니다. 특히 일본인 여자친구를 둔 차베스는 여자친구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저를 웃게 만들어주었고, 존 아주머니는 토요일에는 제 학생이지만, 지난학기 동안 목요일에는 제 영어 선생님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말이 낯설고 한국어를 갖 배우기 시작했지만, 차베스를 제외하면 모두 40,50대의 아저씨 아주머니인 덕택에 조금은 느려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학기동안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 개인에게도 한글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8년간 살던 한국을 떠나 훌쩍 미국으로 온 제게 이곳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큰 의지와 위안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 소풍 때 느꼈던 것처럼, 지금 저한테는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풍날 아이들과 1대 10으로 줄다리기도 하고, 함께 공과 프리즈비를 주고받으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몇 시간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이 느꼈을 듯이, 저 역시 마음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과 아이들 덕분에 저는 유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덜 느끼며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해봅니다. 가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말을 듣지 않으면, 화도 나고 답답해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라도 같이 있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희 고급반에는 남학생들 밖에 없는데, 앞으로 몇 년을 함께 해서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글을 아직 읽지 못할 성인반의 미국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들과 더불어 언젠가 이 글을 교재삼아 읽을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글학교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한인회 여러분 그리고 간식 준비 및 각종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2009 여름미술반 / 성인 한글반  
여름 성인 한글반

기간: 2009년 6월 5일 - 7월 31일  
(8주, 금, 오후 6 - 8)  
수업료: \$90

여름 미술반 1: 서예 (입문반)\*

모집학생 대상: 만 4세 - 성인  
기간: 2009년 7월 20일 - 24일 (1주, 월-금, 오전 9시 - 정오)  
수업료: \$100 + \$25 재료비,  
준비물: 앞치마나 흰 겉옷, 간식

여름 미술반 2: 종이접기\*

모집학생 대상: 만 4세 - 성인  
기간: 2009년 7월 27일 - 31일 (1주, 월-금, 오전 9시 - 정오)



수업료: \$100 + \$25 재료비

준비물: 앞치마나 흰 겉옷, 간식

여름 미술반 3: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입체조각\*

모집학생 대상: 만 10세 - 성인

기간: 2009년 7월 20일 - 31일 (2주, 월-금, 오  
후 1 - 3시)

수업료: \$200 + \$50 재료비

준비물: 디지털 카메라, 앞치마나 흰 겉옷, 간식

\* 7월 3일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엔 반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반 이상이나 2명 이상 같이 등록을 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장소 및 연락처: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nm.kls@hotmail.com

교장: 전옥미, MBA, (505) 991-2160

Summer 2009 Arts & Korean Classes

Summer Adult Korean Language Class

Session: June 5 - July 31, 2009 (8 wks,

Fri. 6 - 8 PM)

Tuition: \$90

Summer Art Class 1: Introduction to Korean

Calligraphy\*

Open to students ages 4 and up. Adults welcome.

Session: July 20 - 24, 2009 (1 wk, M - F, 9 AM - Noon)

Tuition: \$100 + \$25 materials fee

Must bring: an apron, smock or old shirt; snack

Summer Art Class 2: Paper-Clay\*

Open to students ages 4 and up. Adults welcome.

Session: July 27 - 31, 2009 (1 wk, M - F, 9 AM - Noon)

Tuition: \$100 + \$25 materials fee

Must bring: an apron, smock or old shirt; snack

Summer Art Class 3: Sculpture Using Digital

Photography\*

Open to students ages 10 and up. Adults welcome.

Session: July 20 - 31, 2009 (2 wks, M - F, 1 - 3 PM)

Tuition: \$200 + \$50 materials fee

Must bring: a digital camera, an apron/smock/old shirt, & snack

\* Please contact the school by July 3rd. We reserve right to cancel any classes for low enrollment. There is a multi-class / sibling discount.

Location & POC: NM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Community Center)

9607 Menaul Blvd. NE (NW corner of Menaul & Eubank)  
Albuquerque, NM 87112,

nm.kls@hotmail.com

Principal: Okmi Jun Blemel,

MBA, (505) 991-2160

## 430명 총원 예정

Kirtland Air Force Base는 오는 9월, 430명의 직원을 새로 뽑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뽑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Air Force의 핵관련 업무를 강화,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43명의 군인들과 187명의 민간인 국방부 직원을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Kirtland에는 현재 7000여명의 군인들과 민간인 국방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7000명중 약 4,200명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이고 2,800명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Kirtland의 인력 보충은 핵관련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공군에서는 공군의 핵관련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Kirtland의 핵무기 센터를 확장하는 것도 이 계획의 일부라고 합니다.

새 일자리는 Kirtland 내에 12개 부처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9월 30일부터 일하게 될 것입니다. Kirtland Base의 군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377연대 Security Force에서 134명 정도 혹은 새 일자리의 1/4정도의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민간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entry level에서부터 중급, 고급 직위까지 다양한 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6월 7일자 Albuquerque Journal 기사 번역)

## Water Heater Safety

욕조나 샤워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끓는 물에 의한 화상의,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끓는 물에 의한 화상은 미연에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Water heater를 안전 온도인 화씨 120도에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아기들이나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때, 빠르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물 온도가 화씨 145도인 경우 부분 화상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도 안되지만 물 온도가 화씨 120도인 경우는 약 5분가량 있어야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물 온도를 조금 낮게 맞추어 놓는 것은 내츨릴 개스를 덜 쓰게 하여 개스비도 절약하게 됩니다. 화씨 120도의 물 온도는 샤워나 목욕 시 물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불평하게 되거나, 세탁이나 설거지를 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하지는 않는 온도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Water heater의 온도를 정부에서 추천 하는 화씨 120로 맞추어 놓는 것을.

## PNM 에서는 냉장고나 냉동고를 재활용 시킬 시 30불을 줍니다.

사용하던 냉장고나 냉동고를 새것으로 바꿀 때 PNM에 재활용 요청을 하면 30불의 Rebate와 함께 무료로 수거해가 기까지 합니다. 단,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에 한해서입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오래된 냉장고도 적절히 재활용하고 돈도 받게 되는 1석3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를 재활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에너지 절약

냉장고와 냉동고는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형 모델들은 신형 모델들에 비해 에너지

## Kirtland Air Force Base 오는 9월

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한 달에 약 1,500 kWh (kilowatt hours)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비해 신형 모델들은 한 달에 약 500 kWh 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환경 보호

재활용의 일환으로, 냉장고와 냉동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PNM 냉장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8,537개의 냉장고와 냉동고가 재활용되었습니다. 그것은 85,370톤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동위 물질이 대기에 뿜어지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 3. 쉬운 방법

PNM에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로 사용하던 냉장고나 냉동고를 수거해 가도록 날짜를 잡습니다. PNM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수거해 가고 \$30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Refrigerator Recycling : PNM.com/fridge or call 1-877-643-1956)

##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여름 방학 프로그램

여름방학.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기간이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무렵고 긴~ 시간이지요. 이 여름 방학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앨버커키 시에서 주관하는 몇 가지 여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Swimming>

Albuquerque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5개의 실내 수영장과 7개의 실외 수영장이 있다는 걸 아세요? 각 수영장에서는 각각의 수영강습과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수영장. 위치, 입장료, 시간 등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abq.gov/aquatics](http://www.cabq.gov/aquatics)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Summer Reading Program>

Albuquerque에 있는 공립 도서관에서는 5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8주간 Summer Reading Program을 실시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일환인 이 Summer Reading Program은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reading log와 bookmark 등을 받게 됩니다. 읽은 책 목록을 적은 reading log를 다시 도서관으로 가져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각 도서관들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음악, 미술, 인형극, 책 읽어주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도서관 별 자세한 일정표는 [www.cabq.gov/library](http://www.cabq.gov/library)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돈만큼 총을 더 가져오시오.”  
“아내가 돈 받아서 난 모르는 일”**

[수암칼럼]

청와대 정문을 통해 ‘100만 달러’가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전례는 40여 년 전에도 한 번 있었다.

월남전 무렵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돈을 들고 온 쪽은 당시 M16 자동소총 수출업체였던 맥도날드 더글라스 회사 중역, 돈을 받은 쪽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데이빗 심프슨, 그가 회고한 100만 달러가 얹힌 박 대통령과

의 첫 만남은 이랬다. ‘...대통령 비서관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의 행색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그의 허름한 모습이 순식간에 뇌리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각하! 맥도날드사에서 오신 데이빗 심프슨 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하자 대통령은 ‘순님이 오셨는데 잠깐이라도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다. (박 대통령은 평소에도 집무실과 거실에 부채와 파리채를 두고 에어컨은 끄고 지냈다) ‘각하! 이번에 한국이 저희 M16 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고 국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회사가 드리는 작은 성의...’라는 인사말과 함께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

‘흠, 100만 달러라. 내 봉급으로는 3대(대)를 일해도 못 만져볼 큰돈이구려.’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다. 순간 나는 그 역시 내가 (무기 구매 사례비 전달로) 만나본 다른 여러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한 번 ‘각하!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관례적인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다...’ 그때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가 나에게 말했다. ‘어보시오 한 가지만 물읍시다.’

‘네. 각하!’ ‘이 돈 정말 날 주는 거요?’ ‘네. 물론입니다. 각하!’ ‘그러면 조건이 있소.’ ‘네.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은 봉투를 다시 내 쪽으로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이 돈 100만 달러는 내 돈이요. 내 돈이니까 내 돈으로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당장 이 돈만큼 총을 더 가져오시오. 당신이 준 100만 달러는 사실은 내 돈도 당신 돈도 아니요.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향(독일광부)에서 그리고 멀리 월남 땅에서 피 흘리고 땀 흘려 바꾼 돈이요. 내 배 채우는 데는 안 쓸 거요.’ ‘알겠습니다. 각하! 반드시 100만 달러어치의 소총을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國父=국부)의 모습을 보았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청와대 정문을 통해 같은 액수인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직전 대통령 家의 가문이 속속 벗겨지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똑같은 100만 달러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직책의 인물 측이 받았는데 어찌면 이렇게도 ‘감동’과 ‘치사스러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일까? 똑같이 돈을 주고도 한 외국인인은 애국심과 청렴, 백성애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지도자의 모습에 고개를 숙였고 박연차는 애국심도, 백성 사랑도 없어 보이는 지도자라 여겼을 것이기에 주저 없이 폭로했다. ‘감동이 준 존경’과 ‘경멸이 낳은 폭로’, 그 차이다.



노무현家和 박 전 대통령의 차이는 또 있다. 집안의 빛은 설사 그 빛이 아내가 따로 진 빛이라 해도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라도 갚아주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부부 義(의)다. 빛졌으면 봉하 저택이라도 팔면 될 것이지 되레 돈 준 사람이 떠날 한다고 시비나 걸고 외간 남자에게 빛 얻게 둔 뒤 ‘아내가 돈 받았으니 난 모른다’고 말하는 남자는 ‘참 매력 없는 남편’이다.

초급장교 시절 상관이 쌀을 보태주던 가난 속에도 일기장엔 늘 육영수 여사를 위한 詩(시)를 썼던 박정희와의 인간적 차이다. 심프슨 씨의 100만 달러 사연을 회고한 것은 핵 개발 자금을 수兆(조) 원씩 퍼주고, 수백만 달러 뇌물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들은 무슨 도서관에다 호화로운 私邸(사저)까지 짓게 두면서, 여름날 파리제를 들고 다닌 애국자 대통령에게는 기념관 하나도 못 짓게 휘저었던 10년 좌과 세력에게 피눈물로 참회하란 뜻에서다. 김정길(병예주필)

## 음악 및 영화 감상실 설치법(Set-up)

### 김 준호 장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과 함께 살아간다. 아기가 태어날 때 첫 울음소리는 곧 새 생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음악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산모는 태아 교육을 할 때 모짜르트의 경쾌한 음악을 들려 준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모가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몸 안에 있는 아기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대학을 입학 했을 때, 찬송가 473장 "아 내 맘 속에 참된 평화 있네..." 를 부르며 혼자 좋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북에서 피난 와서 말도 못하게 가난했고, 대학을 갈 수 있을 런지 혹은 직장을 잡아 밥벌이를 해야 하는 건지를 의논하던 중, 그래도 한번은 대학 입학시험만은 쳐보라는 우리 집안의 결정으로 응시 했던 것이 현재 나의 운명을 결정 짓게 되었고 공학도가 되었다. 태능에 있던 서울 공대 캠퍼스에서 점심 시간에 거대한 Horn Speaker로 자주 들려주던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면서 그 음악에 심취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 어찌다가 친구 따라 다방에 가면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 짜릿 짜릿한 바이올린 선율은 내 귀를 놀라게 하였다. 나도 음악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참 다행한 일이다.

어찌되었든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Home Theater(가정 영화관)가 있다. 말 그대로 영화관을 집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영화관을 집에 만들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비디오를 수집하고 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영화관에서는 음악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관객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그런 것을 재현 할 수 있을까? Audio에 미친 사람들은 영화관을 뽐 칠 정도로 잘 만들어 놓고 있다. 아예 집을 지을 때 가정 영화관부터 설계하고 그 후에 다른 방들을 첨가하여 공사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미국의 가정집 구조가 가정 영화관을 설치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비용도 큰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음악 감상실과 영화 감상실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꼬집어내라면, 음악 감상실은 악기들의 위치와 sound stage의 크기, 음질의 조화, 잔향 계수(Reverberation time, RT)등을 더 까다롭게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잔향 계수란 어떤 음(예로 middle C)을 "땅"하고 어떤 강도로 쳤을 때 그 강도가 60 dB(100만분의 1)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잔향 계수가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RT가 너무 길면 어떤 교회처럼 잔향이 없어지지 않아 웅웅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Intelligibility가 떨어져 무슨 말을 하는 지 흐려지며 음악 또한 그렇다.

우리교회 예배실의 RT는 250-1000 Hz에서 1.5초이고 1000 Hz이상(소프라노 소리)에서는 1초 이내로 떨어져서 굉장히 dry한 소리로 들린다. 다시 말해서 아주 곱고 Pleasing soun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최적한 RT는 125-4000 Hz내에서 1.5 초에서 2 초가 유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RT를 결정해 주는 요소는 방의 크기, 천정의 구조와 재료, 벽면의 재료와 최종처리, Floor의 carpet과 의자들의 shape등이다. 다행히도 우리교회는 Cathedral ceiling 이 되어 있어서 RT를 보완하기가 쉽다고 생각 된다. 그러면 첫째로 가정 영화관의 크기를 24피트 x16피트 x

DLP, LCD, or Plasma	
Use, Concern, or Conditions	HDTV Technology
Dark room (eg: basement theater environment)	Plasma
Bright rooms (eg: kitchens, rooms w/reflections)	LCD or DLP
Gaming (eg: fast motion, static overlay graphics)	LCD or DLP
Content contains lots of movement, action	Plasma or DLP
Repetitive graphics or static content	LCD or DLP
Audience/seating is angled or widely dispersed	Plasma
Audience/seating is straight-on and same height	DLP
Audience/seating is mostly straight or normal	LCD or Plasma
Lower weight	LCD and most DLPs
Shallow depth	LCD or Plasma
Low-profile/sleekness/minimal design	LCD or Plasma
Energy savings	LCD
Black level/contrast	Plasma
Brightness	LCD or DLP
Similarity to CRT	Plasma
Mounting on wall or stand	LCD or Plasma
Sitting on floor or stand	DLP, LCD, or Plasma
Biggest screen size for your money	DLP
Versatility	LCD
Premium viewing	Plasma

8피트(높이)라고 가정하자. (방의 sketch 를 참고 하세요) 이 방안에 음악 및 영화 감상실 겸용으로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TV는 50인치 Hi Def. TV를 16피트 벽면에 놓고 speaker 들과 sofa를 배치한다. 뒷 벽면 전체를 acoustic panel 로 treat한다면 RT 는 0.4-0.6초가 이상적이라고 계산된다. 이때 각 주파수 별( 음계별)로 RT를 보면 125 Hz 에서 0.5초, 250 Hz 에서 0.7초, 500 Cycle 에서 0.54초, 1000 Cycle 에서 0.5초 2000 Cycle 에서 0.47초 그리고 4000 Cycle 에서 0.4초가 계산된다. 다시 말하면, 이 방은 RT 만 따진다면 훌륭한 음악 감상실이 된다고 본다. 가정 영화관 방을 정할 때 정사각형 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방은 Standing Wave가 형성되어서 어떤 위치에서는 음악 강도가 Null이 되어서 잘 들리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거의 죽어버리기도 한다.

둘째로 TV 를16피트 되는 벽면에 놓지 않고 24피트 되는 쪽에 놓는다면 넓은 벽면에서 반사되는 sound wave 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TV를 구입하려고 전자 상점에 가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가지각색이어서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TV 는 크게 3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Plasma, LCD,그리고 DLP 등이다. 그들의 장단점들을 도표로 간추려 보았다. 독자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Hi Def. TV를 마련하고 TV의 Brightness 와 Contrast를 조정 할 때 너무 밝게 Set-Up하면 그 수명이 단축된다. 2009년 6월 12일 부터 모든 방송국이 디지털방송을 실시하므로 지금까지의 4:3 Aspect ratio TV는 사라지게 되었고 16:9 Aspect ratio가 Standard가 되었다. 이들의 TV사양서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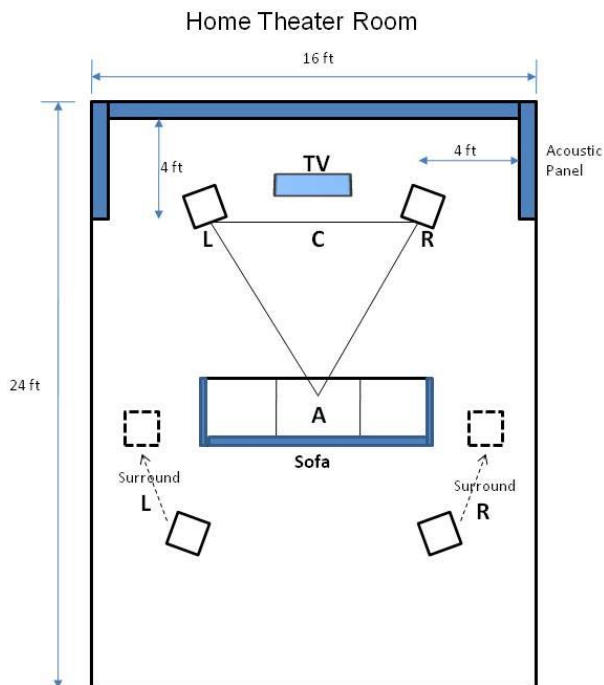
720P 나 1080P 라고 되어 있다. 720P는 주사선을 720번 scan 하는데 progressive (계속해서) 한다는 뜻이다. 옛 TV는 480 번 Interlace로 scan해 왔다. 720P나 1080P 로 주사선을 촘촘히 scan하면 TV화면의 화질이나 해상도가 훨씬 좋아진다. 물론 1080P가 더 촘촘하게 scan하므로 화질은 최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TV Size가 커지면 1080 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50인치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가격은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

세째로 스피커를 몇개 사용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최소한 2개를 사용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스피커를 사느냐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달려있다. Fidelity나 Boomy Sound나 아니면 Style이나 등을 염두에 두고 찾는데, 사람의 귀가 또한 다분히 Subjective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현재 Popular한 Sound system(특히 영화의 sound track을 만들 때)은 5.1 channel sound system인데 이밖에도 6.1 아니면 7.1system이 있다. 5.1은 speaker 6개, 6.1은 7개, 7.1은 8개를 사용한다. ".1"은 Subwoofer speaker를 말한다. 우선 내 sketch를 보면 Subwoofer를 삭제하였는데 subwoofer는 글자 그대로 낮은 음만을 재생하는데 40-20 Hz 사이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방안에 아무 곳이나 놓을 수 있다. L은 도면에 있듯이 Front Left Speaker이고 R은 Front Right Speaker, C는 Center Speaker, Surround L은 Surround Left Speaker, Surround R은 Surround Right Speaker이다. A는 Sofa Seat 중 가장 가운데 Sweet spot이다. ALR 은 거의 정사각형 관계를 만들도록 거리 조절을 하면 된다. 예로 50인치 TV 를 사용한다면 TV 에서 sofa를 50인치 x 2 = 100인치 (약8피트) 정도에다 놓으면 적당하다. 그리고 LR 의 거리가 10피트라면 AL 과 AR 이10피트되게 하면 TV 를 보는 최적 거리가 나온다. 다만 개인의 시력에 따라 약간의 변동을 주어도 될 것이다.

L, R의 Tweeter (스피커의 고음을 재생하는 것) 높이는 사람의 앉은 키보다 약 10인치 정도 높게 위치하면 이상적이고 Surround Speaker들은 24인치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Surround Speaker를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것들이 Surround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체 음악실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Surround speaker 의 sound level 은 너무 높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Ambient effect 만을 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L,R 이 옆벽과 뒷벽에서 3-4 피트씩 안으로 놓여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음향효과를 감안해서 지정한 것인데 음파는 공기 중에서 그 속도가 약 one millisecond당 one foot씩 전진한다. 그러므로 L,R Speaker에서 뒤로 또 옆으로 반사( reflective wave)되었다가 sofa까지 오는데 약 8 millisecond가 delay 되어서 들린다. 이것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sound field를 넓혀주고 깊게 만들어 주는 비결이다. 물론 Power Amp 에서 이 delay time 을 조절해 주기도 한다. 한편 가정집의 구조상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Amp에다 기대해 봐야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Speaker들을 Floor에 놓을 때 Spike를 Speaker 밑에 부치면 Bass sound 의 Clarity 가 좋아진다.

정말로 잘 설계된 Concert Hall 은 미세한 Violin 소리를 맨 뒷좌석에서도 또렷하게 들리고 Opera 가수가 무대 한 구석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을 Hall 어디에서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완벽한 컨서트 홀은 찾기가 힘들다고 들었다. 다시 도면을 보면 TV 뒷벽과 L,R Speaker 있는 곳까지 Acoustic panel이 덮혀 있다. 이것은 Dead-End Live-End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5.1 Channel sound system layout

L: Front left speaker  
R: Front Right Speaker  
C: Center Speaker  
Surround L: Left Speaker  
Surround R: Right Speaker  
Distance: L-R = L-A = R-A



Speaker를 사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취향에 맡기고자 한다. Speaker Cable 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수 있다.

넷째로 모든 Components 가 준비 되었으면 이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로써 비싼 DVD Player를 사 놓고 그 output을 TV에 연결 할 때 우리가 아는 데로 그저 RCA Connector 가 달린 cable 을 쏘다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조금 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HDMI cable을 사용해야 TV 화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VHS player 는 HDMI output이 없으므로 S Video나 Component Video를 사용해야 한다.

근래에 나오는 Power Amp에는 phono input 가 없어서 몇 백장을 collect 해놓은 album들을 들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phono Preamp를 따로 설치해야 하므로 조금 번거롭다. 그러나 어떤 A/V Receiver 는 phono input이 내장된 것이 있어서 그러한 Receiver를 찾으면 좋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receiver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Power Amp( separate)를 사용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데 separate를 원한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결과는 크게 다르다고 본다.

Turn Table 에 쓰이는 Moving coil cartridge 가 몇 천 불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하겠지만 Audio세계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새롭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년 전에 어느 누가 Plasma TV 를 생각했고 5.1 Sound system 을 생각했겠는가 .

모든 과학문명이 말해 주듯이 우리들은 끝없는 여행 (Endless journey )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천만금의 System의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저 TV 하나 만으로도 세상을 편하게 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각 사람의 취미가 다들 다르니 어떻게 하라 ! 취미대로 가아지!

## 인사동 옛거리에 홀백 복진 미국인, 한국문화의 참모습, 미국에 알린 계기돼

### 박영숙 집사(Park FineArt 관장)



등지의 현역 화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전시회로 각국 현대 미술의 수준과 경향을 가늠해보는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알버커키 전시를 마치고 54점의 작품을 서울로 보낸 뒤 나는 이번 순회전의 큐레이터인 자슈 프랑코(Joshua Franco)씨와 함께 곧 바로 비행기를 탔다. 자슈 프랑코씨는 서울 방문에 흥분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전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3일까지 열렸다. 인사동 경인미술관은 전시장소로 흠 잡을데가 없었다. 규모와 또한 내용면에서 알버커키 전시와는 비교가 안되었다. 오프닝 리셉션에는 신재



남 미술협회이사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미술협회 간부들의 축하와 격려가 있었다. 신재남작가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작가인 박학성, 기독교 미술협회 총무이신 김주철, 그리고 한국인물화가 회 회장을 역임하신 주운항작가와 천연 종이를 손수 만들어 작업하시는 영담스님 들 많은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였다. 일주일 간의 전시기간 중 경인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약 1700여명 정도였다. 미국 중서부 지역 미술시장에 견주어 본다면 대단한 숫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많은 관람객들은 다국적 전시회라는 데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그 트렌드가 다양했다. 구상이건 비구상이건 작품 제작 스타일에 다채로움이 돋보였고 작가정신도 치열하게 드러났다. 한국 미술계는 이제 세계 톱 수준에 와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 싶다. 자슈 프랑코씨는 서울, 특히 인사동의 독특한 한국 문화에 흠뻑 취했다. 한식집의 낮은 지붕, 신발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앉은뱅이 자세로 앉는 것, 마당을 가로질러야 다른 방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서 내온 한정식, 또한 그 놀랄만한 미각의 세계... 세상에 이런 동화 속 나라 같은 곳이 있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자슈 프랑코는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이에요." 그는 지금 한국말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내년엔 있을 전시와 기회가 된다면 한국서 살고자 하는 맘으로... 자슈 프랑코씨를 통해 서울 전시회를 전해들은 미국화단의 작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도 받고 있다. 왜 이번전시에 안 불러주었고, 난 왜 한국에 안데려가 주었느냐고, 내년 전시엔 꼭 참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순회전시를 치루느라 힘은 들었지만, 여러모로 의미있고 참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던 행사였다. 특히 한국미술이 미국 화단에 본격 소개된 점과 한국 문화와 사회의 진 면목이 알려진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준비와 진행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만 하고 싶지만 주변의 성원과 관심이 커 내년에도 개최하기로 했다.

여러가지로 힘이 되어주시고 전시에도 참여해주신 홍수영 화백과 교우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었다. 한편 이번 전시를 함께한 신재남, 박효정, 김주철, 주운항 체계복 작가들의 그룹전이 이번 11월에Park Fine Art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박 학 성 작 가 는 오는10월에 신타페에 있는

Finale 갤러리에서 개인 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 동유럽 기행문

### 제2일 : 독일 드레스덴 (Dresden)

#### 이경화 장로

독일 온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 일행은 뉘른베르크를 떠나 작센(Saxen)주의 주도인 드레스덴(Dresden)을 향하여 약 세 시간 반을 달렸다. 한 시간 반쯤 되었을 때 가이드 이정주씨는 '이제 부터는 동독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위의 경치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이제 통일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으니 동서의 구별이 있을 리가 없다. 50년 가까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이곳은 통일 직후에는 고속도로도 아주 낙후된 도로였지만, 통일 후 막대한 투자를 도로 개선에 투입한 결과 고속도로도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없어졌다고 한다. 통일 직후, 동서간의 차이가 많았던 것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대체로 공산국가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좀 무뚝뚝한 것 같았다고 한다. 특히 호텔이나 식당의 종업원들이 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획일적인 체제, 개인의 창의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체제 속에서 서비스 정신은 높은 평가를 못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뚝뚝한 인간성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정치체제가 국민의 성격도 바꾸어놓는다'라는 사실에 놀라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 통일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로 교체되어서 예전과 같은 동서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세 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자니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휴게소에 차를 대면서 이정주씨는 50센트씩 잔돈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화장실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용료가 50센트이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50센트를 내면 50센트의 쿠폰을 받게 되고 이 쿠폰은 휴게소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휴게소가 아닌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결국 화장실 유지비를 받아서 청결하게 유지도 하면서 그 쿠폰을 휴게소에서 사용하게 하여 동시에 휴게소 매상도 올라가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 머리 잘 쓰는 독일인들의 아이디어는 알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범적으로 잘사는 나라답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휴게소임을 볼 수 있었다.



<츠빙거 궁전과 정원>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Autobahn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많았다. 우리 일행이 탄 미니밴을 운전하는

이정주씨는 '안전위주로 운전하기 때문에 과속을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적어도 75~80마일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옆의 차선으로 쉐썸 지나가는 차를 보면 우리 차는 기어가는 기분이었다. 빨리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독일차들이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차로 Porsche, Mercedes, Audi, BMW, Volkswagen 등의 차가 그리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다.

우리가 가는 드레스덴은 2차대전 때 가장 심하게 파괴된 도시라고 한다. 1945년 2월 13일, 14일에 걸친 두 번의 공습은 미영 연합군의 폭격기 800여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습이었는데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약 13평방마일 지역이 초토화되었던 도시였다. 드레스덴이 엘베강변의 피렌체라고 불리기도 한 것은 이태리 피렌체(플로렌스)만큼 문화적 유산이 많은 도시라는 데서 기인한 말이다.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복구되었고, 통일 후 산업도 활발해져서 반도체, 제약, 자동차 관련 산업이 드레스덴의 주요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제일 큰 공과대학도 이곳에 있다고 한다.

점심때가 되었을 즈음에 드레스덴에 들어섰다. 이곳 관광은 Theatre Square 광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광장 옆에는 켐퍼 오페라하우스 (Semperopera)가 있었다. 국제적 명성이 있는 이 오페라 하우스는 1841년에 세워 지고 리처드 와그너가 초대 지휘자로 활약했던 곳이다. 2차대전 때 파괴되었으나 동독시절에 재건축된 것이었다. 그 옆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츠빙거 궁전이 있다.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인 궁전으로 1728년에 지어졌다.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궁전 건물은 참으로 불만했다. 40개의 마이센 도자기로 만든 차임종도 자랑거리다. 매시간 마다 컴퓨터로 선택한 노래를 울린다. 건물 내에 있는 도자기와 미술 박물관도 유명하다고 한다. 건물은 전쟁 때 파괴되었지만, 박물관 내의 미술품은 대피시켜 두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레지덴츠 궁전 담에 장식된 벽화를 보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 벽화는 길이가 100m가 넘는데 12,000장의 마이센 타일을 붙여서 만든 벽화다. 말을 타고 가는 역대 왕과 지도자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작센 왕조의 35대에 걸친 족보라고 볼 수 있다.

드디어 이곳 관광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프라우엔 교회 (Frauenkirche: Church of Our Lady) 앞에 이르렀다. 유럽여행을 하면서 많은 가톨릭 성당을 보게 되지만 이교회는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루터교 교회란 것이 우선 특이하다. 교회 앞에는 종교개혁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마틴 루터(Martin Luther) 동상이 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일반 가톨릭 성당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면 강대상 부분은 연한 노란색과 연한 푸른색으로 강조된 장식에 아주 밝게 설계되어 있었다. 깃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있고, 좌석도 강대상을 둘러싸듯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서 어디 앉아도 강대상이 잘 보이게 설계되었다. 오페라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이층 삼층의 좌석배치도 특이하다. 원래 이 교회의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가지만 지금의 이러한 모양의 개신교 교회로 건축된 것은 약 250년 전이다. 당대에 유명했던 건축가 게오르게 베어(George Bähr)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되었는데 96m 높이의 종 모양의 돔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베드로성당과 같은 기술로 건축한 것이다.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도 유명하다. 세바스찬 바하가 여기에서 첫 오르간 연주회를 가진 기록도 있다. 일만톤이 넘는 무거운 사암돌로 쌓은 돔이 이 건물의 특징인데 이를 떠받치는 기둥도 없이 지탱하게끔 설계된 것이다. 1760년 7년 전쟁 때 100여발의 포탄을 맞고도 건재한 돔이다. 이 교회는 1945년 2월 대공습





<프라우엔 교회앞의 마틴 루터 동상>

독일계 미국 생물학자 블로벨은 미국으로 망명 오기 전 어렸을 때 드레스덴에서 이 교회를 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드레스덴의 프라우엔 교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돕기 위해 Friend of Dresden이란 비영리단체를 미국에서 만들어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는 후일 노벨상을 수상하자, 상금 100만불 정도의 전액을 이 교회를 위해 바쳤고 미국의 헨리 키신저도 이 모금운동에 가담했었다. 독일과 미국 및 해외인들을 합쳐서 1만여명이 이 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프라우엔 교회 건축을 돕는 운동에 큰 몫을 했다. 드레스덴 폭격에 가담했던 영국 조종사의 아들이 드레스덴에 심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시민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금을 입힌 교회 십자가를 만들었고, 건축비용을 모



<프라우엔 교회내의 정면>

금하는 일에도 영국 여왕을 위시해서 많은 영국인들이 도왔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상징이 평화와 화해(Peace and reconciliation)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드레스덴의 시민들이 건축모금에 참여한 얘기도 우리를 감동케 한다. 교회의 부서진 돌을 잘게 쪼개어 이를 팔아서 2만3천 유로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 드레

스덴 시민과 교인들은 물론, 드레스덴 은행과 은행직원들까지도 도와서 공사비를 마련했다. 총 공사비 1억8천만 유로를 들인 건축공사가 1993년에 시작된 이래 2005년에 완공되어 그해 종교개혁 기념일 하루전날 봉헌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다.

건축방법에 있어서도 독일인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건축재료로 부서진 돌을 최대한 재활용한 것이다. 이는 비용을 절약하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기억 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었다. 부서진 돌을 쓰레기로 버린 게 아니라 일일이 점검해서 쓸만한 돌 8,500개를 골라내어서 일일이 번호를 매겨서 보관한 것이다. 옛날 사진자료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개의 돌이 어느 위치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아내어 이를 제 자리에 올려놓는, 대단히 인내를 요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쓰인 돌이 3,800개가 된다고 한다. 교회 외관 사진을 보면 노란돌 중에 여기저기 까만 돌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옛 건물에서 가져온 재활용된 돌인 것이다. 교회가 봉헌되고 난 후 3년 동안 이 교회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7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프라우엔 교회를 보고나서 엘베강변의 테라스로 갔다. '유럽의 발코니'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슈베르트의 가곡에 나오는 성문 앞 우물곁에 서 있는 보리수, 보리수 그늘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네 사람의 거리의 악사로 구성된 Brass Band인데 '윌리엄 텔' 서곡을 신나게 불고 있었다. 노래 가 막 끝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지갑을 뒤적이며 유로 한 두장씩 꺼내어 감사 답례를 하고 자리를 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지나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다.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려서 체코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스위스국립공원으로 갔다. 사암절벽과 밀로 흐르는 엘베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었다가 드레스덴의 호텔로 저녁 늦게 돌아왔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일어난 얘기 하나를 후기로 추가해야겠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카이로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가던 도중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과 부헨발트 유대인 강제소용소를 들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 드레스덴 시에서는 대단한 환영 행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환영 축제를 열고 40m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린 후부터 공식회담, 기자회견등 TV에 생방송되는 모든 영상을 보여주고 거리에는 환영하는 포스터를 여러 곳에 붙인 것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5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는 즉시 프라우엔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었다.

여기까지의 기행문을 끝내기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질 않고 갑자기 'Prince of Denmark's March'라는 트럼펫 연주가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라서 갑자기 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다시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YouTube를 통해 그 음악을 여러 사람의 연주로 들어 보았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에서 프라우엔 교회에 관한 자료를 더 얻어서 기행문에 보충자료로 쓸까하고 프라우엔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보았더니 독일어로 된 교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다. 거기엔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독일어 사전을 뒤지며 기사를 읽어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교회 문을 열고 비숍의 안내로 들어올 때 'Prince of Denmark's March'란 곡을 오르간반주자와 트럼펫 솔로리스트가 연주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곡은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올랐던 곡이 아닌가? 방금 YouTube를 통해서 들은 이 곡을 그때 연주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치가 아닌가? 프라우엔 교회는 그곳 방문시에도 내게 감명을 주었지만 한 달이 지나 이곳에서 기행문을 쓰는 가운데에서도 놀라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그곳 비숍의 안내로 기도처에 가서 촛불을 함께 켜고, 제단 앞에 함께 가서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를 드렸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루터교 목사님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대기하고 있던 성가대가 멘델스존 작곡의 무반주곡인 'Denn Er hat seinen Engel befohlen'이란 곡을 불렀다고 했다. 시

편 91장 11-12절 이가사로 된 아름다운 곡이다. 가사를 우리 말로 보면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성가가 끝날 때까지 서서 듣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자 교회를 떠나 츠빙거 궁전으로 갔다고 써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우엔 교회에서 성가와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들푹 받고 떠난 것 같다.

(다음은 체코의 프라하를 소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츠빙거 궁전에서 NBC의 Tom Brokaw와 TV인터뷰를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2009년 6월5일. 사진제공: 백악관Pete Souza)

## ‘한국전쟁참전용사인정법안’ 제안 김한나 “7월 27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김한나는 누구? 대학원 다니며 미 의회 누벼1983년 한국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모국인 한국을 더 빨리 알고 싶은 마음에 LA에서 고등학교를 1년 빨리 조기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후 다시 LA로 돌아와 UCLA에서 경영전문인과정을 수료하고, 2007년 워싱턴DC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평화롭게 종식시키기 위해선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지 워싱턴대학 정치경영학과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 입학했고 지난달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년에 한국전쟁을 미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전 평화협정연합(Global Coalition For Korea War Reconciliation)을 결성했다.

이하는 워싱턴 중앙일보가 김한나씨와 한 인터뷰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 사이의 시민전쟁(Civil War)’ 라고 여기는 것 같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남북전쟁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단순한 시민전쟁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사람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디오피아 등 전세계 26개국의 병사들이 참가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뻔 했던 역사상 전례 없던 큰 전쟁이었다. 미국의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 전쟁이기도 하다. 영토전쟁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고, 또 한국전은 미국의 흑인병사가 처음으로 백인병사와 함께 참전했던 전쟁이기도 하다. 하지만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한국전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는 전무하다시피 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다” -한국전 평화협정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작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한국전을 미국사회에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 사실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단체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구성원들의 한데 모여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이름처럼 이 단체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정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많은 한인들은 한국전이 발발한 6월25일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은 7월 27일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전쟁 발발일보다 휴전일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언젠가 얼마든지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이들이 이같은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한국전과 관련된 기념일이 되면 각종 행사를 통해 미국인들과 직접 만나 한국전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참전용사 감사법안의 내용은 “우리는 얼마 전 제안된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 H.R.2632)’ 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도 땀 것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법안은 지난 200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이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잊혀졌다가 작년에 다시 제안됐다. 지난해 같은 경우 6월 25일에 민주당의 찰스 레인글 의원이 똑같은 법안(S.1888/H.R.6363)을 제안했지만 또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달 22일 제안된 감사법안에 제안자인 레인글 의원 외에도 각 당의 하원의원 4명이 지지서명을 한 것이다. 감사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한국전이 휴전된 7월 27일이 되면 미국 전지역에서 성조기를 게양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미 연방하원의원 435명 중 한국전 참전용사가 3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상원의회엔 존 워너 의원이 한국전 참전용사였지만 얼마 전 퇴임을 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의원 한명이 없어진 것이다. 다행스런 일은 얼마 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스펙터 알렌 의원도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 “이 감사법안은 미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상정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로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예전에 정신대 위안부 결의안 때처럼 한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인단체의 힘이 필요하다. 바라기는 전국에 있는 한인단체들이 지역 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조사해본 바로는 전국에 한민회가 163개가 있다는데 한 한민회가 3명의 하원의원을 맡아 설득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정신대 문제는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다르다. 미국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직접 참전했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한국전에 대해 미국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바



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한 오해를 말끔히 풀어야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들 또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거나 다음 달 27일에 있을 예정인 평화촛불모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심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웹사이트: [www.remember727.org](http://www.remember727.org)

Dear President Nam and Distinguished President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Thanks to your support (esp. Mr. David Lee from NY, Dr. Charles Sung from OH, and NY, FL, NJ Chapters) WE ARE SEEING GREAT PROGRESS!!

With Congressman Rangel championing the bill in the House, HR 2632 looks prospective -- the bill is currently under review in th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ohn Conyers Jr. is an original co-sponsor, and Ranking Member Lamar Smith just signed-on as a co-sponsor yesterday, hence there's a "good chance we'll get the bill on the floor next week."

However, we have to garner as many co-sponsors as possible. I'm entreating you -- PLEASE see the attached sample letter and EMAIL IT BACK to me with your signature BEFORE MONDAY July 13 so I can deliver them on Monday. You can also fax a copy to me at FAX: (202) 280-1465.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PLEASE HELP DISTRIBUTE THIS FORM WIDELY to other local organization presidents. THINGS ARE MOVING EXTREMELY FAST: We don't have much time -- ONLY THIS WEEKEND!

Also, if possible, please ENCOURAGE your MEMBERS to collect signatures at CHURCH or at MARKETS today and tomorrow. They can fax it back to me in the number listed so I could deliver them directly and quickly to the proper offic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ncerely,  
Hannah Kim 202-725-5995  
[www.remember727.org](http://www.remember727.org)



## Korean War resumption? Stars And Stripes Korea edition: Provided by Frank Praytor

This time Kim Jong-Il may not be bluffing. In an alarming analysis in an official Chinese publication, a senior advisor to the Chinese government expects North Korea to launch a war on the South in the belief that it has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Zhang Liangui,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rategy at the Central Communist Party School in Beijing, also writes that he regards Pyongyang's nuclear program as posing a significant and unprecedented danger to China. Zhang, who has been at the school since 1989, is a specialist on North Korea, where he studied at

Kim Il-Sung University in Pyongyang from 1964-1968. His analysis, in the June 16 issue of World Affairs magazin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of the North ever to appear in an official publication. It reflects Beijing's rising anger with its neighbor and frustration that it can do so little to change its nuclear policy --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ntry relies upon it for supplies of food and oil. The first generation of Communist leaders had strong sympathy for Kim Il-Sung, who studied at secondary school in northeast China, spoke Mandarin and fought with Chinese forces against the Japanese. The current leaders have no such feeling for his son, whom they regard as a bandit. In the magazine, Zhang wrote that the world underestimates the magnitude of the risk on the Korean Peninsula. "If we look at the situation as it is, the likelihood of a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high," he wrote. "It will start on the sea and then could spread to the 38th parallel. If a war breaks out, it is very difficult to forecast how it would develop. North Korea believes it now has nuclear weapons and has become stronger. It believes that it has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over the south and would certainly win a war," he sai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June 1953, the North has never recogniz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which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at the time as the sea boundary between the two sides and which the South accepts. On January 17, it repeated its refusal to recognize the boundary. A scene of bloody clashes between the two sides, the area contains 2,500 islands and is rich in fishing resources. There has been a gradual escalation in tension since January, when the North announced a --state of total war|| with the South. It has since then tested long-range missiles and a nuclear bomb. Zhang also said that the North's nuclear tests pose --a risk that it [China] had never faced for thousands of years.|| Nuclear tests by the US, Russia, China, Britain and France were carried out in deserts or remote places far from population centers. But the North's tests are just 85 km from the Chinese border, Changbai county in Jilin province, and 180 km from Yanji, a city of 400,000 people.

"The tests are close to densely populated areas of East Asia. If there were an accident, it would not only make the Korean nation homeless but also turn to nothing plans to revive the northeast of China," he wrote, asking why the tests were far from Pyongyang but not far from China. "The danger for China is extremely grave. We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is risk. If we cannot bring about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nkind will pay a heavy price, especially the countries bordering Korea," he wrote. Pyongyang, he said, has never liked the six-party talks that have been trying, with Beijing's help, to get the North to relinquish its nuclear program because it regards the matter as essentially a bilateral issue to be settled with the United States alone. He does not believe North Korea will return to the stalled talks. "North Korea has turned from being a non-nuclear state into a nuclear one. In addition, it has at least 800,000

tonnes of heavy fuel [under terms of an earlier shut down of the country's main nuclear reactor]. The six-party talks have fulfilled their historical mission." Zhang said that Kim Jong-Il is racing to fulfill the mission given to him by his father before he hands over power to his successor, expected to be his youngest son Kim Jong-woon, 25. This includes making North Korea a nuclear state, a symbol of a powerful country: developing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these nuclear weapons, re-negotiating the NLL and obtaining possession of the five major islands in the western sea and their rich fishing grounds, using nuclear weapons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chieve reunification. Zhang's assessment of Pyongyang reflects Beijing's anger against North Korea and inability to influence policy ther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s like negotiating with the mafia which is blackmailing you," said Wang Wen, a veteran Chinese journalist. "Beijing continues to supply the North with food, oil, consumer goods and other items it needs. The North does not pay. It [China] could cut off the supply, which would lead to a collapse of the regime. That would mean a unified Korea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Pyongyang knows this and continues to blackmail China, like the mafia." He said that, to prevent this scenario, Beijing has continued to keep the regime afloat. "For years, it has been pushing the North to follow its example of economic reform and not political reform. The Kaesong industrial park is a small step in this direction, but there is nothing else." The park, a joint ven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10 km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employed 40,000 North Korean workers in more than 75 South Korean factories as of July last year. In June, the North demanded new average salaries of US\$300 a month, up from US\$75, which the South has ruled as unacceptable. The wages go largely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ijing understands very well the mind-set of Kim Jong-Il," said Wang. "It is the same as that of Mao Zedong when he built China's nuclear bomb in the 1960s, when his people were starving. The Soviet Union did not help and the US wanted to bomb the site, but it built the bomb anyway. North Korea today is more isolated than China was then, so it needs the bomb even more."

<><><><><><> Analysis: What would war with North Korea look like? Secrecy makes contingency planning hard By Ashley Rowland, Stars and Stripes Pacific edition, Sunday, July 12, 2009

SEOUL — Little is known about the secretive country considered the most closed society in the world. Crossing into North Korea, analysts say, you could expect to find crushing poverty, widespread hunger and a massive military that includes nearly one in three of the communist nation's citizens. Beyond that, it's anybody's guess. "It's such an isolated society that we only have ... glimpses of what's going on," said Brig. Gen. Richard Haddad, commander of Special Operations Command Korea. Should U.S. forces ever be called on for a mission inside North Korea, it is the unknown that presents the biggest

challenge, Haddad said. Special operations forces are trained for unconventional warfare, often executed by teams of guerrilla fighters. Those forces — which include troops who specialize in civil affairs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 can also be used after major fighting to track down remnants of the enemy and build up a country's security forces to restore order, as they are doing in Iraq and Afghanistan. For them, knowing how the average North Korean views the country's leaders and the U.S. is critical. So is knowing the landscape, since they could be dropped behind enemy lines in small teams with only the gear on their backs for support, analysts said at a recent special operations forces conference at U.S. Army-Garrison Yongsan, South Korea. They painted a picture of a country whose population is poor, hungry, weak and increasingly unhappy with the corruption and opulent lifestyles of Kim Jong Il and the elites who run the communist country. And, they said, Kim Jong Il's regime is weak and unlikely to survive a change in leadership. Geographically, the hatchet-shaped country is bordered by seas on two sides, offering plenty of coastline where teams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could be inserted. But those teams would operate on difficult, mountainous terrain that North Korea's 80,000 special operations forces know well, said conference speaker Markus Garlauskas, an intelligence analyst for U.S. Forces Korea who studies possible future challenges with North Korea. But he said the country's mountains and poor infrastructure could also help U.S.



troops isolate parts of the country from the North Korean military during a war. U.S. troops would also face a network of underground military facilities that are a double-edged sword — bad if you stumble across them but good if you can capture them and have a hiding spot to operate from, Garlauskas said. U.S. troops would face a wave of problems in North Korea if the regime collapses, including loose nuclear weapons, pockets of resistance fighters, looting and millions of refugees heading to China and South Korea, said retired Brig. Gen. Russell Howard, a former Special Forces officer and now a senior fellow at the Joint Special Operations University, who spoke at the conference. In the chaos and anarchy that would follow, some North Korean groups — splintered by political and economic divisions — might be fighting for control of the country. "There may be organized resistance that may be as afraid of each other as they are of us," he said. For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their biggest job might be fin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country before someone else does — a mission that likely would require infiltration and boots on the ground, Howard said in an interview after the conference. "I just don't think dropping a 500-pound bomb is going to work in the caves or wherever they have this stuff," he said. "You have to go in and find this stuff." Special operations forces could also be used in a counterpropaganda campaign to help chang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Americans that North Koreans have. And

they could be used to track and help care for the 5 million refugees who are expected to try to go to South Korea and China. It would take 450,000 to 500,000 military personnel to "achieve success" after the collapse of the regime, Howard said. Special operations forces would be used differently than they are in Iraq or Afghanistan, where they are tasked with hunting down al-Qaeda and the Taliban and training the fledgling security forces in each country, Howard said. In

North Korea, U.S. troops would be working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might not be needed to work with North Korean forces after the initial "direct action" phase, he said. But if special operations forces were to train guerrilla forces, a key question is whether a typical North Korean — controlled, obedient, isolated and heavily indoctrinated to hate Americans — can be persuaded to participate in unconventional warfare and fracture the regime's control. "He may even believe this is an elaborate sting operation to test his loyalty," Garlauskas said. U.S. troops could leverage resentment toward the elites who make up 25 percent of North Korea's population to persuade North Koreans to fight with them, he said. But if they believe the U.S. will win, those same elites might also want to partner with U.S. forces as a way to secure their position in the next government, he said. Complicating matters for troops on the ground is the question of whether North Korea's neighbors would decide to enter the fight or try stop the flow of refugees into their countries, something nobody knows. "It's not just about what will North Korea do. It's about what will the Chinese do; what will the Russians do," Garlauskas said. Finally, experts agreed, preparation is vital. If a war with North Korea were to come, it could develop quickly "from a certain slow boiling crisis like the one we're in now," Garlauskas said. "It may not be immediately clear that a crisis is really going anywhere, until it suddenly takes the proverbial turn south." Howard stressed that planning is critical also in the event of the collapse of the Pyongyang regime. "Once it gets out of hand, you can't put it back in the box," he said.



#### 'N. Korean Leader Has Pancreatic Canc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s suffering from pancreatic cancer, South Korea's cable news network YTN reported Monday, quoting unidentified intelligence sources in South Korea and China. Kim, 67, was diagnosed with the cancer around the time he collapsed by a stroke last summer, YTN said. Kim's health has been the object of intense media speculation due to concerns about instability and a possible power struggle within the reclusive communist country. Recent photos showed that Kim looked wearier and older than before. His third and youngest son, Jong-un, has reportedly been picked as Kim's heir bu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confirm it.

##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을 켜지 마세요.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을 켜지 마세요. 차에 들어 가신 후 창문을 여신 후 몇분 있다가 에어컨을 켜세요. Please do NOT turn on A/C as soon as

you enter the car. Open the windows after you enter your car and turn ON the air-conditioning after a couple of minutes.

왜냐고요: Here's why: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계기판, 의자, 공기 방향제는 벤진을 발산합니다. 벤진은 발암물질인 독입니다. 자동차 속의 플라스틱 제제에 서서히 열이 가해 질때 나는 냄새는 발암물질인 벤진입니다. According to a research, the car dashboard, sofa, air freshener emit Benzene, a Cancer causing toxin (carcinogen - take time to observe

the smell of heated plastic in your car).

벤진은 암뿐만 아니라, 뼈에도 독이며,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백혈구 수도 줄어 듭니다. In addition to causing cancer, Benzene

poisons your bones, causes anemia and reduces white blood cells..

계속 벤진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암의 위험을 증가 시키고,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Prolonged exposure will cause

Leukemia, increasing the risk of cancer. It may also cause miscarriage.

허용 벤진 양은 50mg/sq. ft. 입니다.

Acceptable Benzene level indoors is 50 mg per sq. ft.

자동차를 문들을 닫은 채 실내에 주차했을 때

차 안의 벤진 양은 400 - 800mg입니다.

만일 화씨 60도(F)이상이고, 옥외의 햇볕에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 벤진 양은 2000 - 4000 mg, 즉 허용치의 40배입니다.

A car parked indoors with windows closed will contain 400-800 mg

of Benzene. If parked outdoors under the

sun at a temperature above 60 degrees F, Benzene level goes up to 2000-4000 mg, 40

times the acceptable level...

창문을 꼭꼭 닫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벤진을 피할 수 없이, 과한 양의 독을 짧은 시간에 계속 들이 마시게 됩니다.

People who get into the car, keeping windows closed, will inevitably

inhale in quick succession excessive amounts of the toxin.

벤진은 신장과 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입니다.

게다가 한번 몸에 들이마시면 뱉어 내기는 매우 힘듭니다.

Benzene is a toxin that affects your kidney and liver.

What's wors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your body to expel

> this toxic stuff.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 타시기 전에, 자동차 문과 창문들을 여시고, 자동차 안의 갇힌 공기가 바뀔 시간의 여유를 주세요.

So friends, please open the windows and door of your car - give

time for interior air to out dispel the deadly stuff - before you enter.

(이석중 목사님 정보 제공)

## 사랑의 나눔 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께,

길에 서서 흘러듯 한 말을 기억해 주시고 격려의 글까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빨리 답장조차 쓸 수가 없을 만큼 가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민과 힘겨움이 있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또, 설상가상으로 생기지 않아도 될 별별 피곤한 일들이 생기고 꼬이고 하네요. 워낙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못하는 사람인지라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두 가지만 겹치면 머리에서 쥐가 나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뉴백시코에 온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늘 마음이 떠 사는 지라 좋은 사람을 봐도 알아보지 못했고, 좋은 일이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집사님께서 주신 하루 세 번 기도는 정말 제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어쩔 제게 이렇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가슴 찡 했지요.

요즘 하느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산 시절은 시간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게 하시더니 하느님을 알게 된 지금은,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가고 싶고, 목요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주일이면 목사님 설교 듣고, 좋은 사람들과 잠시라도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왜 그에 필요한 시간을 주시지 않는지... 아직도 제 마음에 교만이 있음을 아시는지..하지만, 요즘 가게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지요. 모든 하느님 말씀 미리 예습 좀 하라고 자습 시키시는 걸까요???

집사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게요. 또, 내가 이방인 일 때 사람들이 낯설다던가요... 요즘 새삼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심에 감사해요. 저는 늘 사랑을 받기만 했지 나눌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나누고 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나에게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길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집사님 덕분에 내 주변에도 따뜻하고 고마움 분들이 계심에 결코 외로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보렵니다. 집사님도 큰 일 치르시고 힘드셨을 텐데...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이 제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밝으신 모습, 그리고 가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00 자매님,

힘을 합쳐 열심히 사시겠다는 말씀에 나도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윗왕 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어, 오늘은 행복하게 살거야"라고 선언하세요. 가게에 가서는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며 실수 없이 일 잘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잠 드세요.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000 집사가 이천 구년 이월 십 오일에

## 『♡여자와 어머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 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 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건디어 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 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 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 받을 때 행복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되려 한다.

여자는 수 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웁 긴 글\*

## ♡ 웃는 연습을 하라 인생이 바뀐다 ♡

웃음에 대한 한국인의

해부학적인 단점은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웃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이고 습관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뇌에는 웃는 입 모양을 식별하는

전용시프템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입꼬리를

위로 올려서 웃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입모양만 바꾸어서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어도

뇌는 이것을 실제로 웃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우리 몸에

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

입꼬리를 당기고 내리는 근육의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말기암 시한부 3개월의 절망 속에서

웃음으로 활력을 되찾은 김상태 목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웃음으로 활기를 얻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다.



스트레스에 찌든 우리의 마음도 웃음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할 힘을 얻게 된다.

신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 웃음 오직  
우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즐기자  
인생이 바뀔 것이다.

- 좋은 글중에서 -

## 이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드리는 글

당신이 내게 와서 아픔이 있어도 참아 주었고  
슬픔이 있어도 나 보이는 곳에서  
눈물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고달프고 힘든 삶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어 할까봐 내색 한번하지 않고  
모질게 살아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세월이 눈물뿐입니다.  
살펴보니 눈가에 주름만 가득할 뿐  
아름답던 미소는 간 곳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일에 슬퍼하면  
모두가 당신 탓인양 잘못된 일 하나 없으면서  
잘못을 빌던 그런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이 있게 해준 사람은 내가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것도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  
까.

생각해보니 항상 나의 허물을 감추  
려고 화내일  
밖에 없었고 언제나 내가 제일인  
것처럼 당신을  
무시해도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와  
준 당신..  
그런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곁에 있어주는 당신으로만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신에게 폭군과 악처가 되었습니  
다..

돌아보니 내가 살아 갈 수 있는 힘이었고  
나를 만들어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살아오던 세상도 나 혼자  
세상이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월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파도 원망 한번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가슴  
제가 되었겠지요.  
같이 사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잊어버린 당신에게  
창회의 글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온 세월을 어찌 해야 합니까.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고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이  
돌아올까요.  
식어버린 당신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두렵습니다.  
후시라도 떠나갈 당신일까 두렵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 왔는데  
네 곁을 떠나갈 당신일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  
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  
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당신에게 한번도 쥘본적 없  
는  
진실한 마음을 어이해야 합니까..

아파하며 살아 왔을 당신에게  
무엇으로 남은 인생 보상하겠습니  
까.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이여~  
남편과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지말  
자..  
평생의 한이 서리고 피눈물나는 못  
을 빼주자..  
옆에서 고생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파사로운 정으로 행복 나누시기  
를.....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  
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  
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sup>th</sup>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505-275-9021)

Air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668)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ir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8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505-338-2424)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Ya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242-8542

#### 모텔 Hotel 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E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97199 (408-334-7227)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765-5098 cell 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332-6663 (cell) 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E35 ABQ, NM 87111 296-0336

####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Dr. Park: 5900 Forest Hills Dr NE, Albuquerque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 리오란초

####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0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 로스 알라모스

###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대출혈: Los Alamos (505-662-9681)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8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 471-6698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 갤럽 Gallup

###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 라스크루세스

## Las Cruces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132 S. Solano Dr., Las Cruces (575-636-1624)

## 화밍톤

###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 327-7167

#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 렌트/부동산

### 도와주세요

혹시 주위에 재봉기  
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기본 박음질, 밑단 줄이  
기 등등 가장 기본만 배  
우고 싶은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봉틀은  
"brother XR-7700"입  
니다. 꼭 연락주세요...  
스케줄이나 사례 등은  
전화통화로 조율할까  
요? 505-301-9053 감  
사합니다

### 정보 마당

### 구인/구직

### 사고/팔고



## \*김치 페스티벌

한인회에서는 오는 10월 3  
일 추석을 기하여 순회영  
사 업무와 함께 김치 페스  
티벌을 계획 중입니다. 많  
은 기대바랍니다.